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ISSN 2093-3118

Trade Focus

Vol.10 No.6

중국 위안화 무역결제의 타당성 검토

2011년 2월

최용민 FTA통상실 실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차

[요 약]

I. 연구배경 및 목적	1
II. 위안화의 국제화와 무역결제 동향	4
III. 위안화 무역결제에 대한 평가	7
IV. 결론 및 시사점	17

☐ 보고서 내용 문의처

최용민 FTA통상실 실장(☎ 02-6000-5395, choi@kita.net)

* 『Trade Focus』는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매주 월요일 이메일로 발송하는 KITA CEO Report와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http://iit.kita.net>)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이 21.2%에 달해 2위 국가인 미국(10.2%)보다 2배 이상 높다. 특히 지난해 대중국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5.0%)이 최고치에 달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중국 교역규모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무역의 결제통화는 달러화 위주(97%)에서 벗어나지 못해 위안화 결제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최근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 도모하는 차원에서 무역결제를 적극 독려,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위안화 결제액은 5,063.4억 위안으로 같은 해 중국의 전체 교역액의 2.5%에 불과하지만 위안화 결제 시범기업 수를 크게 확대한 2010년 4/4분기의 위안화 결제액은 3,128.5억 위안에 달해 같은 기간 중국 전체 무역규모(8,155억 달러)를 기준으로 5.8%에 도달했다. 특히 북경시는 두자리 수에 육박(8%)하여 중국 전체의 위안화 무역결제를 선도하고 있다.

위안화 무역결제는 송금방식이면서 현지법인과의 거래가 균형 상태이면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송금방식 수출입의 경우 중국내 업체는 환전수수료(100만 달러 거래시 2천 달러) 절감이 가능하고 수출대금을 수령한 한국내 업체가 향후 결제수요를 위해 외화예금을 한다고 가정하면 위안화가 달러화에 비해 약 3%p정도 이자수익이 높다. 신용장 거래는 중국 수입업체는 환전수수료(100만 달러 거래시 2천 달러) 절감이 가능하지만 한국 수출업체는 환가료가 달러화보다 비싸 추가 비용(100만 달러당 약 600달러)이 발생한다. 특히 위안화 이자가 높음을 감안할 때 외상신용장(Usance L/C)을 할인받는 것은 큰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이 경우 달러결제가 필수적이다. 한편 위안화 결제시 중국에서 외환확인증명서가 필요 없고 사무처리가 편해지면서 환리스크도 제거된다.

위안화 무역 결제액은 향후 1~2년 내에 중국 전체 무역액의 10%에 무난히 진입할 전망이어서 대중국 교역확대를 위한 필수 고려사항으로 부상 중이다. 특히 한·중간 위안화 결제액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최대 30%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중국의 자본거래자유화 조치가 보다 진전되어 위안화의 거래비용, 투자처, 환리스크 등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문

I .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에서 대중국 비중이 매우 높음

- 2010년도 대중국 수출입 비중이 21.2%에 달해 2위 국가인 미국(10.2%)보다 2배 이상 높음¹⁾
- 지난해 대중국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²⁾를 넘어서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0%에 달함

□ 대중국 교역규모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무역의 결제통화는 달러화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에서 달러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한 비율은 82.8%(2009년 기준, 관세청)로 매우 높는데, 특히 대중국 교역에서 달러화의 활용률은 97.0%(2008년 기준, 한국무역협회)로 우리나라 전체 수준보다 약 15%p정도 높음
- 대중국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비중은 0.4%에 불과하여 사실상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09년에 위안화 국제화 차원에서 무역결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

-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09년 7월에 ‘대외무역대금 위안화결제 시범 관리방법’을 제정·발표하면서 위안화를 활용한 무역결제 기반을 마련하고 홍콩과 상하이간에 최초로 위안화 결제가 이루어짐
- 2010년 6월에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지역을 기존 5개 도시에서 20개 성으로 확대한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 67,359개로 적격업체³⁾를 대폭 확대(우리은행, 2010년)

1) 2010년 수출입 금액은 1-11월의 실적임

2) 2010년 1-11월 중 대중국 수출액은 1,057.8억 달러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3%가 증가

3) 위안화 수출은 적격업체만이 가능하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수출증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위안화 수입은 모든 업체가 가능함

<중국정부의 위안화 무역결제 규제완화 일지>

일자	조치 내용	발표기관
2003년	- 접경국과 상호화폐결제협약 체결 (러시아, 몽골, 북한,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등)	-
2008년 12월	- 홍콩, 마카오, 윈난성 등과 아세안간 결제계획 발표	국무원
2009년 4월	- 상해시 및 광둥성(광주, 심천, 주해, 동관) 시범실시 (홍콩과 거래시 위안화 결제 의무화)	국무원
2009년 7월	- 위안화 무역결제방법 및 세칙발표	인민은행
2010년 6월	- 위안화 시범사업 확대 (5대 도시에서 20개 성으로, 전세계 거래가능)	인민은행
2010년 10월	- 외국기업 위안화 결제계좌 허용	인민은행
2010년 12월	- 수출분야 시범기업 확대(67,359개) ※수입분야는 제한이 없음	인민은행
2010년 12월	- 2011년부터 중국 기업과 은행이 위안화를 이용한 해외직접 투자허용	인민은행

자료 : 중국 언론 발표자료 정리

☐ 위안화를 통한 무역결제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다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역업계 관심이 높음

○ 무역결제 통화의 다양화는 환리스크 감소는 물론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비용절감 등에도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음

- 자회사를 중국에 둔 경우 위안화 결제는 현지에서 환전이 불필요하여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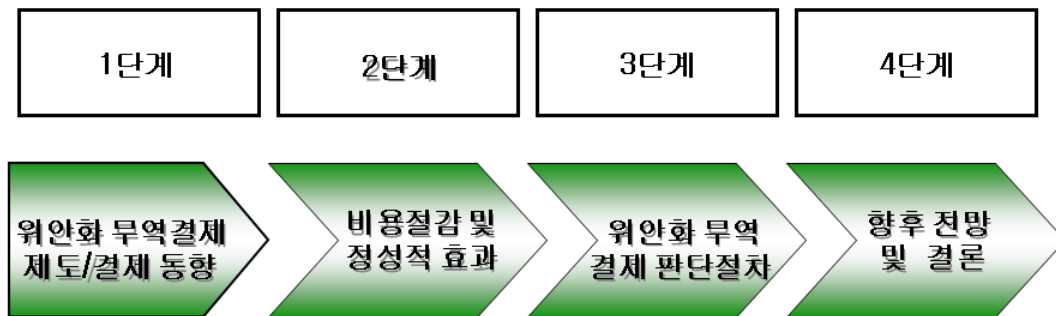
- 중국진출 한국기업 투자법인 수는 2만766개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 기업수의 43.4%를 차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2010년 9월 말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 따라서, 비용절감 효과와 대중국 교역관계를 감안할 때 위안화의 무역결제를 적극 검토할 시점에 도달

○ 전문기관의 무역결제 동향과 전망을 파악하고 한·중간 위안화 결제 전망치를 추정

- 환전수수료 등 비용절감 효과를 거래형태(수출입, 송금방식 및 신용장)에 따라 구분하여 미국 달러거래와 비교하고 위안화 환율동향 및 환리스크 관리환경 등을 검토하여 무역업계가 위안화와 달러 중 어떤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순서도를 활용하여 그 절차를 제시

<위안화 무역결제의 타당성 검토 연구단계>



Ⅱ. 위안화의 국제화와 무역결제 동향

- ☐ 일반적으로 결제통화의 국제화는 무역결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출발점임
 - 통화의 국제화 단계는 무역결제통화 → 투자통화 → 보유통화(Reserve Currency) 등의 단계를 거침
- ☐ 최근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의 초기단계인 무역결제통화 단계에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2010년 위안화 결제액은 5,063.4억 위안으로 같은 해 중국의 전체 수출입 금액(2조 9,727.6달러)의 2.5%에 불과하지만 위안화 결제 시범기업 수가 크게 확대된 2010년 4/4분기의 위안화 결제액은 3,128.5억 위안에 달해 같은 기간 중국 전체 무역규모(8,155억 달러)를 기준으로 5.8%에 달함
 - 북경시 위안화 결제액 비중은 여타 지역보다 크게 높은 8%(2010년 1~11월 기준)에 도달해 위안화 무역결제를 선도하고 있음
 - 전체 결제금액의 80%정도가 홍콩과의 거래이고 수출보다는 수입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위안화의 무역결제 추이>

(단위 : 억 위안)

	'09. 7-12월	'10. 1/4	'10. 2/4	'10. 3/4	'10. 4/4	'10년 전체
결제규모	35.9	183.5	486.6	1,264.8	3,128.5	5,063.4
월평균	6.0	61.2	162.2	421.6	1,042.8	421.9

자료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 ☐ 향후 위안화 무역결제액에 대한 전망도 매우 긍정적임
 - 통상 특정통화가 무역결제 통화로 인정받는 시기는 두자리수 이용률에 도달해야 하는데 중국은 빠르면 2011년, 늦어도 2012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스탠다드차터스은행은 2015년에 중국 상품수입액 중 위안화 결제비중이 15%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며<中國 財經, 2010년 10월> HSBC은행은 중국과 신흥국간 위안화 결제액 비중이 50%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아시아 경제, 2011년 1월 4일자>

<위안화의 수입결제 비중 전망>

연도	수입액(A, 10억\$)	위안화 결제액(B, 10억\$)	비중(B/A)
2011	1,409	21	1.5
2012	1,592	49	3.1
2013	1,799	114	6.3
2014	2,033	212	10.5
2015	2,297	338	14.7

자료 : Standard Chartered(財經, 2010년 10월호)

- ☐ 한국과 일본의 무역업계는 위안화 결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 단계에는 진입하지 못함
 - 한국의 위안화 결제는 2010년 4월에 FnC코오롱의 중국 상하이 법인이 한국의 중소기업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면서 그 대금(20만 위안)을 위안화로 결제하면서 물꼬를 튼
 - 중국우리은행은 한국과의 위안화 결제에 적극 나서 2010년 12월 말 현재 총 10억 위안(1.5억 달러)의 취급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타 대부분의 은행은 아직 준비단계에 머물고 있음
 - 일본의 위안화 무역결제는 2010년 3월에 일본잉크화학공업(DIC)의 중국 생산 공장이 대일본 수입대금을 도쿄미쓰비시은행을 통해 결제한 것이 첫 번째 사례임
 - 미국과는 아직 위안화 무역결제가 개시되지 않았지만 중국공상은행은 2011년 1월 14일부터 기업 및 개인간 위안화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안화 소매영업을 본격화함<THE WALL STREET JOURNAL, 2011년>
- ☐ 홍콩을 중심으로 위안화의 역외시장(외환거래, 채권, 선물 등)이 크게 발달하여 위안화의 국제화에 지렛대 역할을 도모

- 위안화 국제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위안화 보유시 투자처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인데 중국정부는 홍콩을 통해 위안화 역외 예금을 2004년부터 허용한데 이어 2007년부터는 위안화 펀드와 보험판매를 허용했음
- 홍콩내 위안화 예금금리는 0.8%에 불과하지만 이를 중국내 채권시장에서 운용하면 3%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예금이 크게 늘고 있음(2010년 말 현재 홍콩내 금융기관의 위안화 예금은 2,800억 위안으로 1년 전에 비해 5배정도 증가)
- 홍콩내 위안화 채권본드인 '딤섬펀드'의 발행액이 2010년에 407억 위안에 달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위안화 강세시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음)

【사례】 맥도널드와 캐터필라(미국 중장비업체)가 2010년 8월에 위안화 채권을 발행했음

- 골드만삭스는 홍콩내 위안화 예금액이 향후 4년 내 3.5조 위안(5,3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2010년 4월)

□ 그러나, 역외시장 육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위안화 무역결제의 급속한 증가를 낙관할 수 없음

-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국제통화로 데뷔하기 위해서는 역내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개방된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중국의 이런 환경(자본거래 안전 자유화) 조성은 2020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 홍콩거래소는 위안화가 투자통화 및 준비통화로서 기능을 하는데 각각 10년,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음
- 글로벌 대기업들의 위안화 무역결제가 늘기 위해 위안화의 국제유통량이 증가해야 하고 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국제시장이 형성되어야 함
- 일간 외환거래액 비중을 보면 미국 달러화(42.5%), 유로화(19.6%), 엔화(19.6%), 파운드화(6.5%) 순이며 위안화는 0.2%에 불과(2010년 4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

Ⅲ. 위안화 무역결제에 대한 평가

1. 개요

☐ 위안화 무역결제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절감 효과는 쉽게 판단하기 힘들

- 중국측 파트너(한국기업의 현지법인 포함)가 위안화를 달러화로 환전할 필요가 없어 외환수수료 절감효과(거래액의 약 0.2%⁴⁾)가 발생
- 그러나, 수출대금을 받은 한국업체는 결제시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고 위안화 무역결제시 시범기업이 아니면 수출증치세 환급이 불가능하여 큰 손해를 볼 수 있음
 - 한국내 수출업체가 무역대금을 위안화로 받으면 달러보다 약간 높은 환전수수료(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달러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함)와 환가료⁵⁾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중국내 거래기업이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수출증치세 환급이 불가능해 중국기업 입장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위안화 환율 움직임도 위안화 결제를 좌우하는 기준임

- 당장은 위안화가 절상기조여서 한국의 수출업체가 위안화를 선호할 수 있지만 위안화에 대한 마땅한 운용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무역업체가 위안화 환율절상을 기대하고 환리스크를 떠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에 따라, 대중국 거래형태를 수출과 수입으로 대분류하고 이에 대해 송금방식과 신용장 방식으로 구분하여 달러화 거래와 수수료를 비교

4) 중국공상은행이 2011년 1월 12일에 고시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매도율 기준

5) 외국환은행이 신용장 거래에서 발생한 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고객에게는 어음금액을 즉시 지급하지만, 매입한 어음을 상환받을 때까지는 일정기간 소요되는데 이 기간동안 매입은행이 부담하는 어음금액에 대한 이자와 환차손을 고려하여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함

- 수수료는 거래 상대방이 한국의 투자한 현지법인(자회사)인 경우와 아닌 사례로 구분하여 실제 한국의 수출입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환전수수료, L/C수수료, 기타 수수료로 구분하여 비교
- ☐ 또한, 환리스크 헷지, 수출증치세 환급, 업무처리 간편도, 수출절차 간소화 등 비용 이외의 여타 여건도 감안하여 위안화 무역결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 중국의 증치세는 일반공산품의 경우 수입시 17%를 납부하고 가공 후 수출한 제품에 대한 평균적으로 13.5%를 환급하고 있어 증치세 환급여부는 위안화 무역결제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2. 위안화 결제 비용비교

가. 한국의 수출

- ☐ 송금방식으로 수출한 경우 중국의 수입업체는 환전수수료 이익을 취하지만 한국내 수출업체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음
- 중국내 수입업체는 환전수수료(100만 달러 거래시 2천 달러⁶⁾) 절감이 가능하지만 한국내 수출업체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달러화 결제와 동일함
 - 중국내 수입업체가 한국의 투자법인인 경우 환전수수료를 한국내 수출업체와 공유한다고 보면 수출상도 간접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누림(수수료 절감분 만큼 현지 제품가격이 하락한다면 수출상이 마케팅상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판단할 수 있음)
- ☐ 수출대금을 수령한 한국내 수출업체가 자금운용에서 여유가 있어 외화예금을 한다고 가정하면 위안화가 달러화에 비해 크게 유리
- 수출업체가 향후 발생할 수입결제를 위해 3개월 정도 외화예금을 한다면 위안화를 이용하는 것이 달러화보다 11,566달러(100만 달러 기준) 만큼 추가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음(결제수요가 없으면서 위안화 예금을 하는 것은 원화대출 금리를 감안하면 손해임)

6) 중국의 환전수수료는 약 0.2%에 해당됨

<송금방식 수출결제 비용비교(100만 달러 기준)>

		위안화	달러화
거래비용	중국측 (수입자) 부담	환전수수료	없음 \$2,000
		L/C관련 수수료	없음 없음
		기타 수수료 - 송금수수료 - 전신료	\$150 \$150 \$15 \$15
		소 계	\$165 \$2,165
	한국측 (수출자) 부담	환전수수료	\$10,000 \$10,000
		L/C관련 수수료	없음 없음
		기타 수수료 - 지급수수료	\$100 \$100
		소 계	\$10,100 \$10,100
외환보유	운용수익 (한국, 3개월)	위안화(4.93%)	달러화(0.30%)
		\$12,325	\$759

주 : ()안 수치는 2011년 1월 현재 위안화와 달러화에 대한 한국내 외화예금(3개월 기준) 이자율임
자료 : 연구자 직접 작성(우리은행 수수료 기준)

- ☐ 신용장 방식으로 한국이 수출한 경우 중국내 수입상은 비용상 이점이 있는 반면 한국내 수출업체는 손실이 발생
- 중국내 수입업체는 환전수수료(100만 달러 거래시 2천 달러) 절감이 가능하지만 한국내 수출업체는 환가료⁷⁾ 등이 달러화보다 비싸 추가 비용(100만 달러당 약 600달러 손실)이 발생

7) 한국내 환가료 중 달러화는 연 3.2%를 적용하나 위안화는 연 5.51%를 적용(우편일수 9일 기준)

- 중국내 거래상대방이 투자법인이거나 수수료 증가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면 위안화 거래가 유리하지만 이들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위안화보다 달러의 결제가 유리
- 향후 수입결제를 위해 3개월 정도 외화예금을 하는 경우 위안화가 달러화보다 유리하지만 반대로 외상신용장(Usance L/C)을 할인받는 것은 위안화가 비용부담이 큼

<신용장 방식 수출결제 비용비교(100만 달러 기준)>

		위안화	달러화
거래비용	중국측 (수입자) 부담	환전수수료	없음
		L/C관련 수수료 - 개설 및 인수 수수료 - 지급 및 전신료	\$2,500 \$110
		기타 수수료 - 송금수수료 - 전신료	\$150 \$15
		소 계	\$2,165
			\$2,165
	한국측 (수출자) 부담	환전수수료	\$10,000
		L/C관련 수수료 - 통지수수료 등 - 환 가 요 율	₩59,000 \$1,375
		기타 수수료 - 취급수수료	₩20,000
		소 계	\$11,447
			\$10,872
외환보유	운용수익 (한국, 3개월)	위안화(4.93%)	달러화(0.3%)
		\$12,325	\$759

자료 : 연구자 직접 작성(우리은행 수수료 참고)

☐ 한국의 수출업체는 위안화 결제시 위안화 절상에 따른 이익을 기대

- 중국의 위안화는 2010년에 3%정도 절상된데 이어 2011년에도 5~7% 추가 절상이 예상되고 있음<일본노무라증권, 中國興業證券>
- 중국 위안화는 2011년 1월 25일 1달러 당 6.5881위안을 기록하여 사상 최저치에 도달하면서 절상추세를 이어감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추이>

(단위 : 위안)

	전 망 일	2011년 1분기	2분기	3분기
BNP파리바	10월 14일	6.60	6.55	6.50
모건스탠리	10월 21일	6.50	6.40	6.30
DBS	10월 15일	6.56	6.50	6.44
바클레이스	9월 9일	6.63	-	6.48
스탠다드차터스	10월 22일	6.57	6.50	6.43
평균		6.57	6.49	6.43

자료 : 우리은행 중국법인(2010. 11)

나. 한국의 수입

☐ 한국에서 송금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중국내 수출업체는 환전수수료를 절감

- 중국 수출상은 위안화로 대금을 받으면서 환전수수료(100만 달러당 2천 달러)를 절감
- 일부 국내 은행의 경우 송금시 적용하는 위안화의 전신환 매매율 차이가 달러보다 큰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달러수준으로 좁혀야 함

☐ 한국의 수입상이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한국업체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지만 중국 수출업체는 손실이 발생

- 중국 수출업체는 위안화 수출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 일람불 신용장 거래인 경우 환가료에서 약 3%p(8~9일분)가 추가로 발생하고 외상방식이면 환가료 외에 높은 할인이자를 부담해야 함

<한국업체 수입시 비용절감 현황>

	한국업체(수입상)	중국업체(수출상)	평가
송금방식	손익없음(0)	환전수수료 이익(+)	위안화 결제 유리
신용장 방식	손익없음(0)	환가료/할인이자 추가비용(-)	달러화 결제 유리

주 : 0은 비용측면에서 중립, 절감효과가 있으면 +, 그 반대면 -로 표시

【사 례】 A사(중국법인)는 중국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수출입은 물론 투자와 배당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에 나서고 있음. 특히 중국시장에서 배당금이 발생하여 한국에 송금하거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국본사와 위안화로 결제하여 환전의 번거로움 등 업무처리 편리를 도모하고, 환전수수료의 절약 등에 나서고 있음

3. 위안화 무역결제 정성적 평가

☐ 위안화 결제시 중국측 거래선은 업무처리가 편리

- 위안화를 통해 수출입 대금을 결제할 경우 외화(주로 미국 달러)와 위안화로 구분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회계 및 수출입관련 서류를 만들어야 하지만 모든 결제를 위안화로 진행하는 경우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짐
- 수출업체가 중국내 은행에서 외환을 처리하기 위해 허시아단(核銷單, 외환확인증명서)⁸⁾을 필요로 하는데 외화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면 이 서류가 필요하지 않아 계약서, 통관서류, 세금관련 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중국측 수입상은 수입 및 판매가격을 위안화로 관리하여 시장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사 례】 B사(한국 법인)는 중국에 건설중장비를 SKD(반제품)와 CKD(완전부품)로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 매출이 커지면서 매월 거래량을 통합하여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음. 중국내 각 지역에 있는 판매업체는 외환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어 보다 편리하게 마케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위안화 결제를 2010년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음

8) 수출외화대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수출회사가 세관 통관수속, 은행 외화대금 영수처리, 외환관리국 영수처리, 세무국에서 수출증치세 환급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임

□ 위안화로 결제할 경우 중국측 거래선(현지 법인포함)은 환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지만 한국측은 환리스크에 노출되는 단점이 발생

- 중국측의 환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어 수출시 수입상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한국내 업체는 환리스크를 제거할 수단이 달러화에 비해 크게 줄어들음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 등에 대한 환변동보험을 운용하고 있으나 위안화는 아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사 례】 C사는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서비스상품을 수출하는 등 중국법인과 한국본사 사이에 다양한 용역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위안화로 거래함에 따라 현지 지사는 환리스크에 전혀 노출되지 않아 환위험 관리나 환전에 신경 쓰지 않고 업무에만 전력할 수 있음. 한국 본사는 달러 뿐 아니라 위안화로 거래통화를 다원화하여 환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거두고 있음

□ 중국의 수출기업이 위안화로 수출한 경우 수출증치세 환급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함

- 중국의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⁹⁾이 13.5%에 달하고 있지만 중국측 수출업체가 시범기업(6만7,359개)이 아니면서 위안화 거래에 나서면 증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위안화 결제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이 위안화 수출의 경우 시범기업만으로 증치세 환급대상을 제한한 것은 세관의 환급시스템상 애로(수작업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시범기업이 확대될 전망임
- 홍콩 금융시장을 통해 위안화에 대한 환위험을 헷지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상품이 다양하지 못함

9) 중국은 수출촉진을 위해 수입시 납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공산품은 17%)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는 환급해 주고 있음

<위안화 결제에 대한 정성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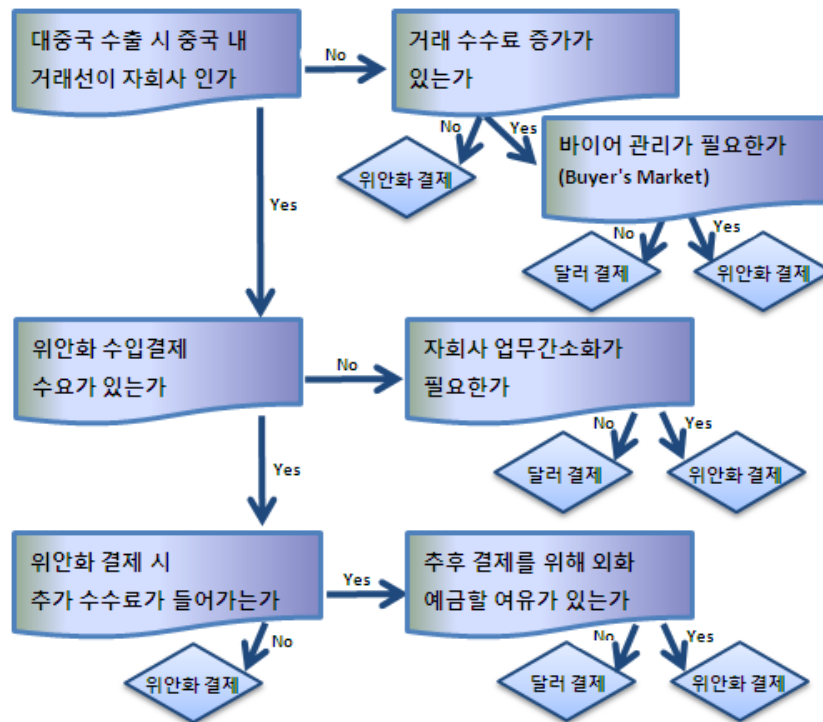
	환리스크 관리	증치세 환급	일반업무 절차	수출입 절차
한국측	리스크 증가	해당사항 없음	큰 영향없음	큰 영향없음
중국측	리스크 없음	불리	간소화	간소화

자료 : 연구자 정리

4. 위안화 결제 검토절차

- ☐ 대중국 수출시 상대방이 중국 투자 자회사이고 수입결제 수요가 있다면 송금방식 위안화 결제를 긍정적으로 추진
 - 수출뿐 아니라 다시 중국으로 수입결제 수요가 있으면 일정기간 외화예금을 통해 이자소득도 얻고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환전도 필요 없어 비용절감 효과가 극대화됨
 - 중국내 법인의 업무간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면 위안화 결제를 통해 정성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음
 - 거래 상대방이 자회사가 아니더라도 바이어 관리차원에서 비용절감 및 업무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려면 위안화 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신용장 방식(수수료 증가) 수출이면서 중국으로 수입결제 수요가 없다면 위안화 결제에 대한 이점이 거의 없음
 - 신용장 관련 수수료와 외상방식 신용장 거래의 이자율로 인해 할인비용이 높아지는 단점이 발생함

<대중국 수출시 검토절차>



자료 : 연구자 직접 작성(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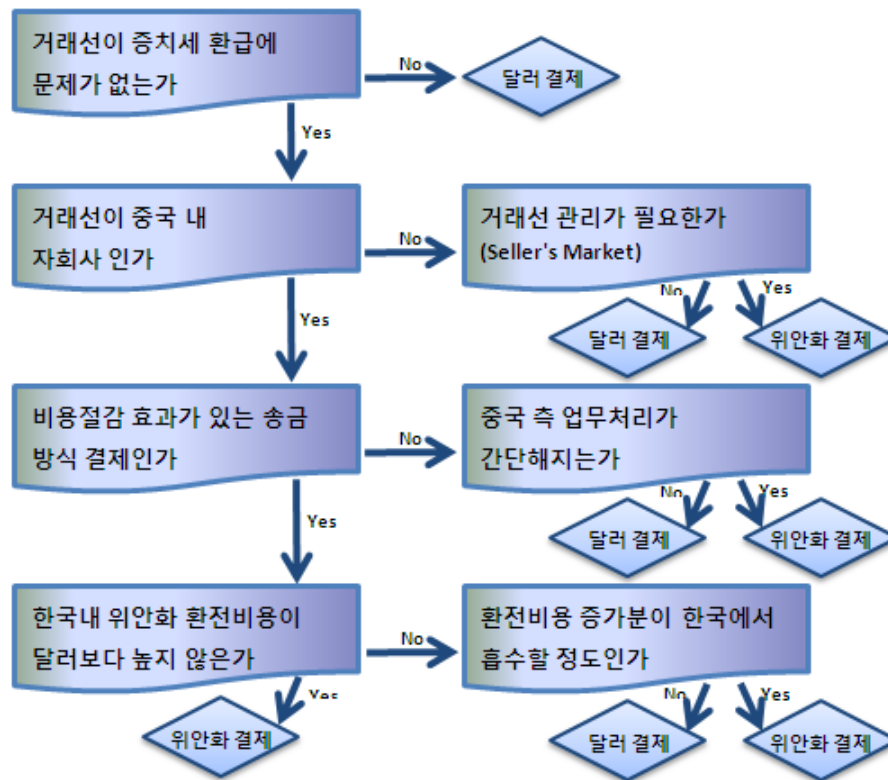
□ 대중국 수입시 중국업체(현지법인)의 수출증치세 환급에 문제가 없으면서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면 위안화 무역결제를 시행

- 위안화 채택시 중국측 업무처리가 간편해지는 효과가 있어 한국에서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단을 확보한 후에 위안화결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측 파트너가 자회사가 아니고(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없음) 특별히 중국내 수출상을 관리(비용절감 및 업무 간소화 혜택 제공)할 필요도 없다면 달러결제가 유리

□ 한국내 수입업체가 위안화 송금시 달러보다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야함

-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달러보다 위안화의 매매율차이가 큼을 감안하여 외국환은행과 달러화와 동일한 수준으로 위안화 수수료를 낮추는 사전 협상이 필요

<대중국 수입시 검토절차>



자료 : 연구자 직접 작성(2011)

IV. 결론 및 시사점

☐ 향후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여겨짐

- 중국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 관련조직을 강화
 - 최근 인민은행은 통화정책국 아래에 위안화 무역결제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외환관리국과 북경시의 관련부서를 같은 건물로 이전하여 업무공조를 도모하고 각 지방공무원 평가시 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 여부를 감안하는 것으로 알려짐<중국 우리은행 관계자 인터뷰, 2011년>
 - 중국 정부는 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 대상으로 화교권 경제인 아세안과 한국 등을 적극 고려하는 반면 현지화 거래가 정착된 미국과 유럽연합에는 당장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느낌임(달러화와 유로화는 수출입 결제시 환전수수료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인터뷰】 아시아 국가들은 인민폐 결제를 쉽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화교가 많은 동남아와 한국 및 일본은 더욱 그러하다. 달러화보다 이자율이 높고 당분간 절상추세가 예상되어 전세계가 인민폐를 선호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직원교육을 완료하고 본점과 중국내 지점은 물론 해외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안화 결제를 독려하고 있다. 중국공상은행의 2010년 중 위안화 무역결제액이 1천억 위안에 달했는데 이중 70-80%가 하반기에 집중되었다. 2011년에는 지난해보다 2배정도 증가할 것이다.<中國工商銀行 국제부 관계자, 2011년>

☐ 위안화 결제에 대한 이익은 송금방식에서 주로 발생하며 수출입 결제수요가 동시에 있는 기업에서 비용절감 효과가 확대됨

- 비용측면만을 감안한다면 위안화 결제시 송금방식이 유리하고 신용장 방식은 상대적으로 불리함
 - 중국내 거래선이 투자법인인 경우 일람불 신용장 거래방식도 비용절감 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위안화 결제의 비용적인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수출입 금액이 균형¹⁰⁾을 이루고 결제대기 자금을 외화예금으로 운용하여 이자소득을 얻어야 함

☐ 그러나, 중국내 수출상이 위안화 결제로 증치세 환급을 받지 못할 경우(시범기업이 아닌 경우) 위안화 거래는 실익이 없음

- 거래금액이 아주 소액이거나 환급률이 1~2%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 증치세 환급금액이 수수료 절감액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임

☐ 정성적인 측면에서 위안화 결제는 중국내 거래처에 업무처리를 간편하게 하고 마케팅상 편의를 제공

- 중국업체는 외환관리 절차가 간단해지고 환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지는 장점이 기대됨

☐ 위안화 무역 결제액은 현재의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1~2년 내에 중국 전체 무역액의 10%에 무난히 진입할 전망

- 위안화 결제에 거부감이 없는 화교권인 아세안과 홍콩과의 교역액¹¹⁾이 중국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6%(2009년 기준)에 달해 이들 지역이 위안화 결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부상할 전망

☐ 한·중간 위안화 결제액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최대 30%대도 가능할 전망

- 대중국 수입액¹²⁾ 중 현지 자회사로부터의 수입액 추정액 70%¹³⁾(501.0억 달러, 2010년 기준)에 위안화 결제를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한 송금방식 결제비율(62.3%)을 감안하면 310.6억 달러가 산출되며 이를 수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수출입 교역금액은 최대 621.2억 달러(전체 교역액의 32.9%)정도가 위안화로 결제될 수 있음

10) 수출입 금액이 균형을 이루면(또는 수출입 금액 중 적은 쪽에 금액을 일치시킴) 한국내에서도 환전의 필요성이 없어 환전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11) 2009년 중 중국의 대아세안 교역액은 2,125억 달러이고 홍콩에 대한 무역규모는 1,744억 달러에 달함

12) 한중간 수출입 금액 중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무역 거래액 균형을 판단

13) 한중간 교역구조 특징과 FTA협상시 고려요인(2010, 최용민)에 따르면 대중국 수입액 중 현지 외국기업(한국기업 추정)으로 수입되는 비중은 71.6%임

- 위안화의 거래비용, 투자처 다양화, 환리스크 관리방안의 존재여부가 위안화 결제비용의 확대 속도를 결정할 전망

☐ 위안화를 통한 대중국 무역결제시 거래은행의 선택이 매우 중요

-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이 위안화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위안화 결제시 각종 비용(이자율에 근거한 환가료와 외상거래의 할인 이자율 제외)이 달러와 같은 수준이나 그 이하에서 결정되도록 은행과 협의를 해야 함
- 또한, 위안화에 대한 예금(달러보다 이자율이 높아야 함)이 가능하고 위안화에 대한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단을 은행이 제공해야 대기업으로 위안화 결제가 확산될 수 있음
 - 2011년 1월 현재 위안화 외화예금시 달러보다 이자율이 2~3%p정도 높지만 거래규모가 큰 경우 투자처가 다양하지 못하고 환리스크 헷지수단도 많지 않음
 - 위안화에 대한 환변동보험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환율 변동성(시장 결정적)이 확보되고 무역결제 금액이 많아야 함을 감안할 때 위안화 보험상품 출현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로 평가됨

☐ 장기적으로는 중국내에서 원화의 자유로운 환전과 송금이 가능토록 위안화와의 동반적인 국제화를 도모

- 한국이 중국의 3위 투자국이고 주요 교역 파트너임을 감안하여 원화의 송금(무역결제 포함)과 환전이 중국과 자유롭게 진행되도록 정부간 협의 필요
 - 중국외환거래센터는 2010년부터 말레이시아의 링깃화(8월)와 러시아의 루블화(11월)에 대해 위안화와 직거래 체제(환율고시 등)를 도입하여 환전과 송금에 편리성을 도모

<참고자료>

- 박동준, “위안화 국제화의 속도와 시간”, 2011. 12
- 북경시, “위안화 국제결제관련 향후 계획”, 2010
- 우리은행,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안화 무역거래 활성화”, 2010. 12
- 友利銀行, “RMB Cross-Border Settlement”, Jan. 2011
- , “중국내 외환금융업무”, 2010, 11. 25
-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증치세 환급조정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2010
- , “한·중간 위안화 송금현황 및 검토안”, 2010. 7
- 한국은행,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현황과 과제”, 2010. 11
- 매일경제, “후진타오 방미 앞두고 절상압력 차단”, 2011년 1월 13일자
- 서울경제, “위안화 강세,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2011년 1월 14일자
- 조선일보, “위안화, 한·중·일 무역 결제통화로 급부상”, 2010년 4월 30일자
- 아시아경제, “위안화, 기축통화 야망”, 2011년 1월 4일자
- 中國人民銀行, “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管理办法”, 2009
- 財經, “人民貨幣香港蓄水”, 2010. 10
- THE WALL STREET JOURNAL, “New Move to Make Yuan a Global Currency”,
JAN. 12. 2011

중국 위안화 무역결제의 타당성 검토

Trade Focus Vol.10 No.6

발행인 | 사공 일

편집인 | 이경태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1년 2월 17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